

# CDP무용단, 전국 무용제 '은상'

공간 구성·안무력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동문들로 구성된 CDP(Col Dance Project) 무용단(대표 탁지혜)이 무용 관련 국내 최고의 대회로 손꼽히는 제27회 전국 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8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무용제는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적인 무용축제로서 각 시·도 예선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대표 단체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CDP무용단은 '사이의 온도'라는 작품을 통해 탁월한 공간 구성력과 치밀한 안무능력으로 타 작품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을 안무한 탁지혜 무용단 대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좁혀질 수 없는 세대적인 거리감을 밀도 높고 깊이 있는 춤 세계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안무 구성 요소는 각자 무용수 개인의 독창적인 움직임 개발을 위해 충분한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느낌과 표현력에 집중시켰고, 음악과 공간 구성 및 무대디자인의 오브제 등 모든 요소들이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들로 표현될 수 있는 이미지 표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CDP무용단이 '사이의 온도'라는 작품으로 제27회 전국 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CDP무용단은 전북대 무용학과 현대무용전공 동문단체로 1대 대표인 최재희(현 CDP무용단 예술감독)를 주축으로 창단되었으며, 2002년 6월 'Live'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창단 이후 16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해온 CDP무용단은 그동안 국내·외의 다양한 무용제에 출전 및 초청되어 지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대무용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도 동문 무용단 선·후배가 고스란히 힘을 합쳐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펼칠 수 있었기에 소중한 은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CDP무용단 탁지혜 대표는 현재 전북대 예술대학 무용학과 출강하고 있으며, CDP무용단 대표와 예술통합교육 움직임놀이터 THEART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군산대 김정숙 교수 개인전 '천년한지 달빛에 물들다'

18일까지 인사동 JMA 스페이스서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김정숙 교수가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JMA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주 전시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주 기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천년한지 달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달항아리를 주제로 비움의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의 축복을 담아내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민족 천년자산인 한지와 달항아리를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해 현대적 조형미에 접목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정숙 교수는 "조선시대 백자 대호 달항아리에는 우리 조상들의 단아한 정신세계가 녹아들어있다"고 설명하며, "기교를 버리고 기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웠더니 오히려 공간이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작가노트에서 "달항아리를 통해 과거와 미래, 나와 너가 공존하는 공간을 빚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정숙 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 28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 미술대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김정숙 교수.

전 3회 특선 및 7회 입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3회 특선 및 7회 입선, 한국미술협회 미술인상, 오늘의 미술가상, 동서미술상, 원미술상, 춘추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술대전 및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아름다움치료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북도

/군산=김정훈 기자

# '한자' 통한 국영수사과 완벽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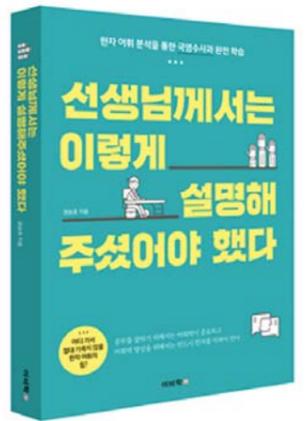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 책 출간

전주영생고등학교 권승호 교사가 학습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휘를 분석하고 해설한 책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했다(도서출판 이비라, 1만 4,000원)'를 출간했다.

진짜부터 한자를 활용한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한자어휘 관련 책을 집필해왔던 저자는 국어 영어 수화 사회 과학 한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자세하게 풀이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주고 싶었고 공부도 쉽고 재미있는 작업임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기초가 중요한 것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간파한 권 교사는 공부에서는 어휘가 기초이고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지식도 지혜도 쌓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한자를 이용해 설명하여 주셨더라면 공부가 쉽고 재미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책 제목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셨어야 했다'로 정했다.

서문에서 저자는 "누군가가 '떠날 이(離)' '이별할 이(離)' '땅 륜(陸)' '붙을 착(着)'이라고만 말해주어도 괴로움은 없었을 것이고, 분수(分數)는 '나눌 분(分)' '숫자 수(數)'로 1보다 작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진짜 분수이고 1보다 크면 거짓 분수이다. 1보다 작으면 '참진(眞)'의 '진분수'인 것이고 1보다 크면 '거짓 가(假)'의 '가분수'인 것임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더라면 공부도 재미



있는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게 됨이 많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한자를 활용한 공부여야 공부가 쉽고 재미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권 교사는 사교육은 스스로 탐구하고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해온 현직 교사로, 배움의 시간보다 익힘의 시간이 많아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진실을 '학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연재했고, '공부가 뭐라고?' '자기주도 학습이 1등급을 만든다' '공부도 모르고 공부하지 마라' 등을 출간했다. /장은성기자

# 전국체전 개최지 익산서, 전국 수석 명품을 만나다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오층 석탑이 있는 세계유산도시 익산에서 전국 수석인들의 작품 향연이 펼쳐진다.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전북도수석연합회(회장 정인용)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 1.2층 전시실에서 '유네스코 지정 천년고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전북의 석향'을 주제로 제31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이며 우리나라 돌문화의 본산인 익산의 역사문화유산과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전국 수석인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수석인연합회와 자매단체인 창원수석인연합회, 배재수석회 등과 동행 전시회로 진행돼 300여 점이 넘는 최고 수석 작품들을 동시에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12일 오후 개막식에서 관내 고등학생 7명에게 각 20만원 총 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인용 전라북도수석연합회 회장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돌의 신비와 지혜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전국체전과 천만송이국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익산 지역 수석인들의 그동안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